

월요논단



정 구 철
제주국제대학교 명예교수

은 나라가 세대 구분 없이 트로트 열기로 가득하다. 활발하게 소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던 시대에서 지금은 소통의 욕구를 최대한 억누르고 최소한의 사회 활동을 하며 스스로 격리해야만 하는 시대에 나타난 사회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백신은 개발돼 상용화되기까지 상당 기간 비대면 생활을 해야 할 듯하다. 미래학자들도 예측하듯 세상은 이미 코로나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고 세계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인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기반으로 발전했기에 위기라고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코로

스포츠, 비대면 시대 제주경제 활로가 될까?

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실을 외면하기보다 미래의 몫을 기대하며 당당히 맞서고 대비함이 바람직하다.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의 호평과 관심을 받고 있다.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K-방역과 복지 시스템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이 증명됐다. 그러나 예방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수동적인 움직임은 사회 발전과 미래를 위해 도움이 안 된다. 그동안 역동적 삶을 살았던 현대인들에게는 에너지를 분출시킬 수 있는 활로가 필요하다.
스포츠가 바람직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스포츠활동은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증진시켜 사회 복지에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IT기술을 스포츠 프로그램과 융합해 일반화시키면 비대면 시대 스포츠 문화부흥에서도 세계를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조깅 열풍이 불던 70년대에 워크맨을

개발했던 SONY가 좋은 예이다.
코로나19는 스포츠 분야에도 크게 타격을 입고 있다. 사상 초유로 올림픽대회가 순연되고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들을 비롯한 상징적인 국내외 대형 스포츠 대회들이 취소된 상태.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전국체육대회도 연기되고 몇몇 프로 스포츠를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런 사회 분위기로 인해 제주 스포츠계 역시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비대면 시대를 극복할 대안도, 정책도, 행정도 움직임 기미가 없어 보인다.
제주는 동계 전지훈련 적지이며 계절과 관계없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누리며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서 그동안 스포츠가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는 막대하다. 비대면 시대라면 비대면 시대 스포츠 모델을 제주에서 선제적으로 시작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스포츠가 제주 경제의 활로를 열게 될 것 기대한다.

지훈련을 위해 외국으로 나갈 확률이 거의 없다. 스포츠 블루오션이 조성된 것이다. 제주도는 재빠르게 부가가치가 큰 프로그램들 유치를 서두를 때이다. 치밀한 방역 정책으로 가장 안전한 지역임을 홍보하며 동계 스포츠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충분한 스포츠시설, 다양한 경로의 스카우트들과의 소통의 기회가 있고 가장 안전한 방역지대임을 홍보한다면 스포츠는 비대면 시대 제주 경제의 화수분이 될 수 있다.
추석 연휴에도 30만 가까운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았으나 스포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방역 문제로 스포츠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치밀하고 유연한 방역 정책이 충분히 홍보된다면 비대면 시대 스포츠 모델이 제주에서 선제적으로 시작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스포츠가 제주 경제의 활로를 열게 될 것 기대한다.

열린마당

청렴 지침서



김 지 희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나를 포함한 많은 공무원이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직급군보다 잘 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이것을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봤다. 첫 번째로 청렴이라는 말 자체가 추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청렴과 관련된 상황인지조차 인식 못하는 것은 청렴이 가지는 다양하고 구체적 모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렴과 관련된 법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사로운 이익과 관계없이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발견해내고 해결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인 행정 또한 청렴의 한 형태일 것이다.

즉, 이와 같은 청렴의 구체적 모습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청렴'이라는 이상적 개념이 현실에 와 닿을 것이다.
두 번째로 청렴을 실천하기 위해 개인이 지켜야 할 행동지침에 더 나아가 이유까지 숙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조직 차원에서 어떤 행동이 청렴의 가치에 반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각 상황별로 무엇이 맞는 행동인지와 더불어 그 이유에 대한 개인의 고찰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그만 유혹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화 된 청렴의 모습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서가 있다면 '청렴'이라는 이상과 '실천'이라는 현실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음을 기대한다. 당장 그것이 없다면 공무원 개인이 나만의 지침서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그 이유까지 추가해서 말이다. 청렴 지침서를 통한 확고한 믿음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실천해 내 자신과 공무원 사회가 더욱 신뢰받는 모습을 고대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화천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하들 짹'

제주도, 유입 차단 총력

○...지난 9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제주도가 도내 유입 차단에 총력.

도는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와 함께 불법 반입 가족 및 축산물 지도·단속 강화와 축산발접지역 등 양돈농장 및 주요 도로변 일제 소독도 실시.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해서는 양돈농가에서 외부인의 철저한 출입 통제와 농장 내외부 소독이 필요하다"며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 오은지기자

민방위교육은 사이버로

○...제주시가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2020 민방위 집합·비상소집 교육을 사이버로 진행중.

교육은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제주시 홈페이지나 스마트민방위

교육(www.cdcd.kr)에 접속해 로그인(본인인증) 후 1시간동안 교육받고 담당형 문제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하면 이수 처리.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한혈수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한혈에 참여한 대원(2020년 한혈 증서 제출)도 교육이수로 처리된다"고 설명. 문미숙기자

"하천 농약오염 원천 차단"

○...서귀포시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농약으로 인한 하천오염을 원천 차단키 위해 농가를 가가호호 방문하며 관련 홍보물을 배포한다는 계획.

농약 살포 후 남은 농약이 농로 등으로 버려지면 하천으로 흘러들어 서식 어류가 폐사하는가 하면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면 농가에도 적잖은 피해가 우려돼 이를 사전 예방키 위한 조치.

시는 관련 홍보물을 농가에 보급, 농가들의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계획. 현영종기자

사설

한·일 어업협상도 재개하도록 물꼬 터야

한·일어업협정이 언제 풀릴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2016년 6월 결정된 이후 5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업협정이 타결되지 않는 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제주어민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매년 어기(그해 7월-다음해 6월)에 맞춰 양국이 어업협상을 벌였습니다. 현재 어업협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주어민들은 일본 EEZ에서 조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매년 일본측에 회담을 요청하고 있으나 일본측에서 응하지 않아 계속 표류중입니다. 이처럼 한·일 어업협상이 전혀 진척없이 수년째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제주어민들의 피해가 만만찮습니다.
다행히 한·중 어업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한·중 양국 간 2021년도 어업협상을 위한 국장급 준비회담을 가

졌습니다. 양국은 내년 한·중 EEZ의 입어 척수와 어획 할당량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한·중 EEZ내 조업금지 기간을 2개월(8-9월)에서 1개월(9월)로 단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보다 더 진전된 방안을 중국측에 제시해 주목됩니다.
물론 한·중 어업협상도 중요하지만 한·일 어업협상이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일 어업협정이 결렬되면서 제주어민들은 목숨을 걸고 원거리에서 조업할 수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길게는 1000km나 떨어진 원거리에 나가 조업하면서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적잖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됐다면 200km 거리의 일본 EEZ에서 조업이 가능하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리 먼 동중국해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제주도는 한·일어업협정도 빨리 체결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차고지 첫 과태료... 선진 주차문화 계기로

제주 차고지증명제가 첫 과태료 부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일부지역에 도입됐고, 작년 7월 도 전역으로 확대된 지 1년여만에 과태료 부과라는 '최종 단계'를 맞은 것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8일 차고지 확보명령에 응하지 않은 94명을 대상으로 1차 과태료 각각 40만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태료는 근거리면 시점인 지난 6월부터 내용 안내와 1, 2차 확보명령,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도 응하지 않아 부과됐습니다. 여기에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은 538건중 우편물 반송과 의견제출, 공식송달 등의 건은 제외했지만 순차적으로 부과 예정입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오랜 준비 끝에 첫 과태료 부과로 전면 시행 단계를 맞았지만 일부 부작용도 여전히 한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제도 정착에 지역민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올 현재 차고지증명제 도입으로 제주도내 대상 차량의 97%(4만5093대)가 차고지를 증명해 '순항' 중이라 평가할 만합니다. 나머지 3%(1393대)가 차고지 미증명 상태입니다.

행정부는 앞으로 차고지 미증명 차량들을 대상으로 한 민원 해소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확대와 정기 주차권 요금 인하도 과감하게 단행, 시민들의 부담을 더 덜어 주어야 합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정기 주차권 요금 인하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민간주차장 임차비용보다 더 낮은 책정돼야 합니다. 집없는 서민들의 주차장 확보, 실직이나 폐업 등 일시적 가계 곤란 등 특별한 사례에 대해 보다 세밀한 대안이 절실합니다.
제주사회가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주차전쟁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입니다. 청정제주 브랜드에 선진 주차문화까지 더 없어질 수 있도록 도민사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부 고
김중현(광명디앤씨(주) 대표) 어머니 전주이씨 이분(엘리사벳·향년 94세)
계서 서기 2020년 10월 11일 14시 46분 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0월 12일(월요일)
▶발인일시: 2020년 10월 13일(화요일) 오전 9시
▶장례미사: 10월 13일(화) 10시 동광성당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
▶장 지: 천주교 황사평 공원묘지
아 들 김 중 현 (엘릭스)
며느리 임 순 덕 (소화메사)
딸 김 유 현 (마리아)
손 자 김 강 산 (요셉)
손 너 김 나 래 (베로니카)
※연락처: 김중현 010-3324-2988 김강산 010-4499-8004

부 고
부정유(前 제주시청) 어머니 전주이씨 은화(향년 85세)계서 서기 2020년 10월 11일 06시 42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0월 12일(월요일)
▶발인일시: 2020년 10월 13일(화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신도리 선영
아 들 부정유 며느리 현애자
정운 고수연
딸 부영자 사 위 박정함
영숙 박주열
정자 진성복
※연락처: 부정유 010-4191-4742 부정운 010-4691-0661 부영숙 010-3078-3295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광산김씨 수화(향년 9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 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0월 12일
아 들 강기권 며느리 송금자
딸 강금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인동장씨 정임(향년 87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0월 12일
남 편 양시욱 며느리 지연희
아 들 양민준 장민희
양민준 장민희
양민준 장민희
양민준 장민희
양민준 장민희
양민준 장민희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부인 신천강씨 숙경(향년 57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0월 12일
남 편 부원균
아 들 부욱현
며느리 박수진
딸 부혜윤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출2리 용암동굴계 거문포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